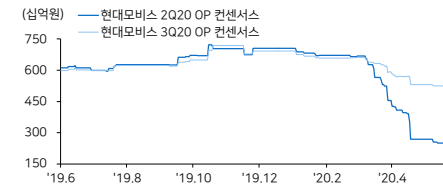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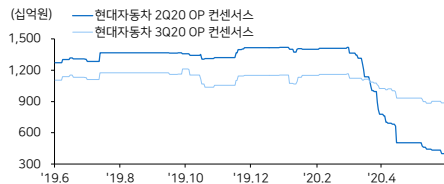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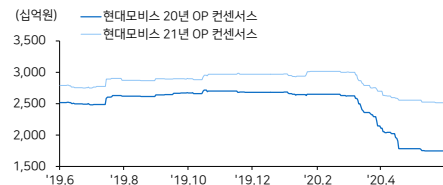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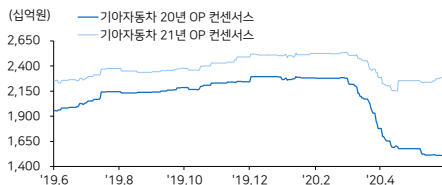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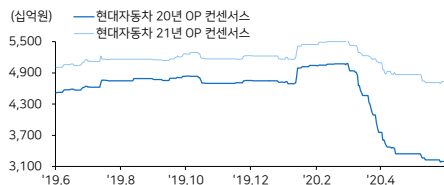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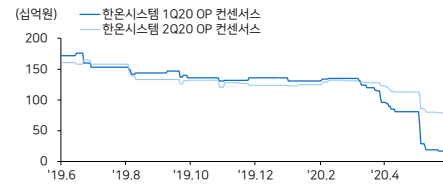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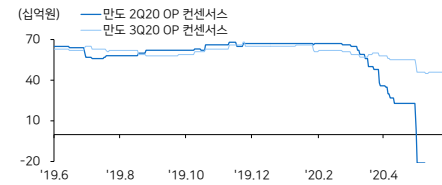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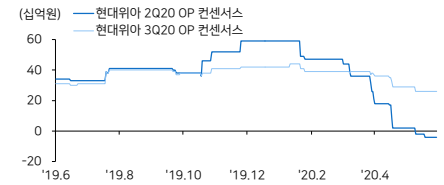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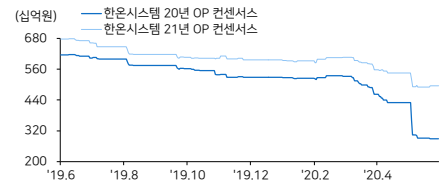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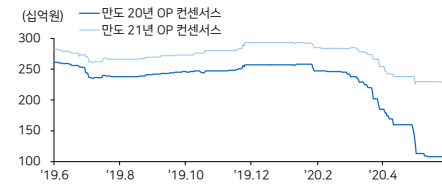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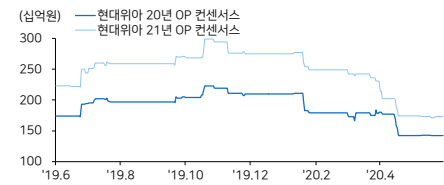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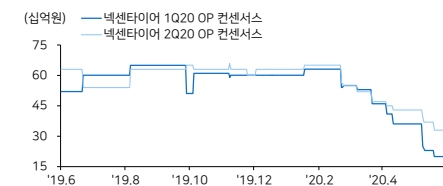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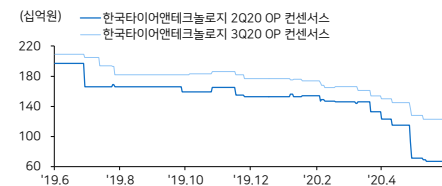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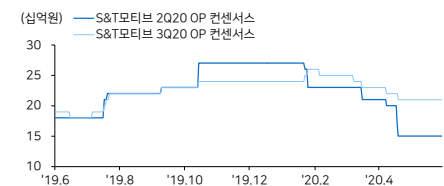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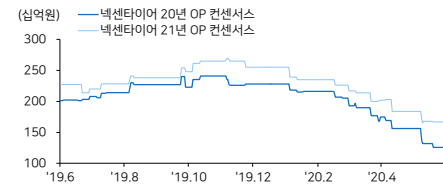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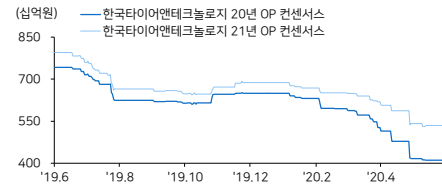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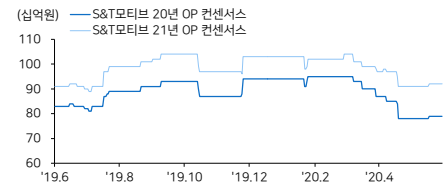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기아차는 이제 전기자동차 회사 (초이스경제)

현대-기아자동차가 전통적 자동차 회사 가운데 최초로 연소엔진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전기자동차 전문매체 일렉트릭이 보도. <https://bit.ly/3cSkQdX>

현대차, 하루 1만 원으로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살 수 있는 상품 내놔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차가 코나EV와 아이오닉EV 등 전기차 구매부담을 크게 낮춘 할부상품을 내놓음. 현대차는 선수금 없이 하루 1만 원 이하의 납입금으로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구입할 수 있는 '엘리트(E-Lite) 할부 프로모션'을 실시. <https://bit.ly/2BdJ2Xs>

유럽 전기차 시장 2020년 1분기 72% 성장 카날리스(CIC)

유럽에서 2020년 1분기에 인도된 신차가 2019년 1분기와 비교할 때 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으로는 약 300만대의 신차 출고가 감소한 것. 하지만 전기차는 같은 기간 72% 폭증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https://bit.ly/2Xlfptg>

테슬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나흘째 1위 굳히기 (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중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음. 9일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5월 중국에서 중국산 모델3 11만95대를 팔아 중국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https://bit.ly/30sXGbQ>

기아차 모닝, 3가지 라인업으로 유럽 무대 '노크' (데일리카)

기아차의 경차 모닝이 부분변경 모델로 유럽 무대를 두드림. 지난달 국내에서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 기아차는 3분기 스포티한 외관의 GT-Line과 크로스오버의 형태인 X-Line 등 총 3가지 라인업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 <https://bit.ly/37g2vXf>

현대차 7월달경 첫 상권. 노조 생존권 요구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노조가 포퓰리즘보다는 조합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쪽으로 올해의 투쟁방향을 정함.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됨. <https://bit.ly/2X02kzq>

중·지남달 자동차 판매 2개월 연속 증가 (연합뉴스)

중국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 신화통신은 중국자동차공업협회를 인용해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214만대로 작년 동월보다 11.7% 증가했다고 보도. 중국의 지난 4월 자동차 판매는 작년 동월보다 4.4% 증가. <https://bit.ly/30maY9Y>

자동차 딜러들 바람 맞는 '인택트오펜' (한겨레)

최근 자동차 구매자들이 온라인 가격사이트 조회 건적요청 뒤 좋은 조건 딜러들과 거래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지엠·폭스바겐·현대·기아 등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출시·강화하고 있음. <https://bit.ly/2Utp3ys>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